전법 일기

거리 두려 하는 건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녁이면 전화가 울립니다. 며칠마다 오는 전화입니다. 받아야 하나 잠시 망설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고민하다가 받습니다.

"스님, 제가 ○○를 가져다 놓았는데 잘 드시고요. 저는 스님에게 저를 맡기고 삽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당부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이어집니다. 조금씩 오는 전화가 부담이 되어갑니다. '사랑 받는 자식의 기분이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저는 그분을 위해 충분히 마음을 내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주 쌓여가는 사랑의 선물에 저의 그릇이 작아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넘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신 부처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부처님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라고 한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사람은 오고가는 마음이 있으면 정을 느끼고 정이 커지면 이렇게 오고가는 마음의 무게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짐이 커지면 서로가 힘겨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벗어보려고 노력해보기도 합니다.

그러자고 그 인연을 떠나자니 마냥 떠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전화하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은 당신이 양보하고 반은 내가 양보합니다. 이렇게 하니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표하고 저의 불편함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해하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필요한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어줍니다. 오히려 점점 관계하는 방식이 건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절에서 키우려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키워준 은사스님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혹여 어른들의 눈치에 불편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방에서 함께 자고 이곳에 정이 들도록 품에 안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 절에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비를 맞으며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아팠습니다. "왜 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라고 물었더니 "그냥 기다렸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던 물기 젖은 눈망울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석 달 후에 부친이 다시 데리고 가긴 했지만 그 뒤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정을 나눌 그릇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당할 만큼 제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이 없는 관계가 편합니다. 정이 많아서 정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어릴 적 경험이 없기 때문인 듯합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전화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귀찮았던 것이 아니고 정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전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②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오도송

마음이 부처임을 믿으면 부처

사나이 가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男兒到處是故鄕)
나그네 인생 시름 속에 길게 헤매이네(幾人長在客愁中)
깨달음의 고함 악! 하고 외치니 삼천세계 깨지고(一聲喝破三千界)
눈 속에 붉은 복사꽃은 조각조각 흩날리네(雪裡桃花片片紅)

이 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39세(1917년 12월 3일 밤 10시경)에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에서 좌선을 하던 중 갑자기 분 바람에 무슨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지은 오도송이다.

칠언절구의 이 시는 전형적인 근체시의 시의 형식인 압운(押韻: 鄕, 中, 紅)과 대구(對句)가 잘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탁월한 명품 선시이다.

기승전결에 따라 살펴보면 기구에서 "사나이 가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이라고 자신의 오도의 경지를 노래했다. 당나라 마조대사는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 오직 마음만이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부처"라고 한 것이다. 내 마음이 부처인 것을 믿으면 부처이고, 내 마음이 중생이라고 믿으면 중생이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 자기 생각이 자기의 세상이다. 만해는 이 도리를 아는 자를 '남아 대장부'라고 표현했다. 고향은 가장 편안한 자기 집이다. 정토이다. 깨달음의 세계이다.

칠언절구 오도송, 내용 탁월해
'고향=정토' 알면 '남아 대장부'
독립운동 주도한 기개도 확인

그런데 인간들은 미몽과 망상, 집착 속에서 헤맨다. 그래서 승구에서 "나그네 인생 시름 속에 길게 헤매이네"라고 읊었다. 진리를 모르면 인생의 밤길이 멀고 길다.

전구에서 만해는 화두공안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립문자의 경계다. 이것을 당나라 임제(臨濟) 선사는 "할(喝)"로 표현했다. 그동안 깜깜했던 무명(無明)과 의심의 세계,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이치가 모두 깨지고 온 세상이 광명이다.

이런 경계를 "눈 속에 붉은 복사꽃은 조각조각 흩날리네"고 갈무리했다. 절창이다. 흰 눈 속에서 붉은 복사꽃이 필 수는 없다. 선가에서는 이런 언어도단(言語道斷)적인 표현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냈다. 이 경계를 방거사는 "아름다운 눈송이가 송이송이 떨어지는구나(好雪片片 不落別處)"라고 노래했다.

3구와 4구에서 색성오도(色聲悟道)의 대구를 이룬다. 3구는 '고함소리 할' 즉, '소리(聲)'이고, 4구는 '흰 눈 속의 붉은 복사꽃' 즉, '색깔(色)'이다. 구도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는 먼저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의식 활동의 첫 출발이다. 향엄 선사는 대나무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香嚴擊竹), 영운 선사는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다(靈雲桃花)는 일화가 있다.

만해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쾌거인 1919년 3·1운동을 주도해 차가운 감옥에서도 끝까지 일제의 회유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나이 가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이라고 외친 그의 깨달음의 실천이다.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전미개오(轉迷開悟)하는 선사의 투철한 오도(悟道) 정신은 한국문학사에서 전통적인 한시의 형식에서 한글로 쓰는 자유시로 건너오는 교량적인 시기에 한시와 한글시, 시조 모두를 잘 구사할 수 있었고, 불멸의 시집인 〈님의 침묵〉을 발표해 당시 서정시 수준을 구사하던 황무지였던 시단에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지닌 관념적인 시를 선사할 수 있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신행의 발자취

1월 20~28일 동국대 전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과 인도 순례를 다녀왔다. 2001년 11월, 부처님 전에 금강경 10만 독을 발원한 법산 스님이 최근 7만독을 성만하면서 이뤄진 자리다. 이번 순례가 뜻깊었던 것은 해성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연화원 장애인불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들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동국대 정년퇴직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 방문, 장애인불자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불자들을 위한 〈점자 금강경〉을 보시하고 다양한 점자 불교 서적 발간을 지원하면서 장애인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고 있다.

십수 년간 법회에서 함께 정진해온 시각장애인불자 3명, 청각장애인불자 2명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한 이번 인도 순례에서는 이들의 발길이 닿는 부처님 성지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다. 순례자들은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어떠한 걸림돌 없이 세상과 연결된 곳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모진 고난에도 신심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을 가로막는 장애를 그윽한 법향으로 승화시킨 장애인불자들의 모습은 감동적인 실화이자 누군가에게는 정진을 이끄는 죽비소리가 됐다.

"성지순례길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좇은 이번 인도 순례자들은 그 누구도 모를 값진 경험을 얻었을 테다.

이번 순례는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가행정진을 향한 견고한 발심의 기둥이자 불자의 자긍심을 드높여주는 디딤돌이 되어주었음에 분명하다. 장애인불자들의 진솔하면서도 금강석처럼 단단한 신행의 발자취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나날이 굳는 간 고통보다 더 큰
사진으로 만난 7살 딸 향한 그리움"

네팔 이주민 키란씨, 간 수치 일반인 40배 · 경화
수술받았으나…병원 빚 1400만원에 앞날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